

하상주보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5년 6월 15일
제2057호

주임 신부: 배하정 다니엘

사도회장: 안민철 미카엘

사무실: 703 968 3010

주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이메일: sthasang@gmail.com

보좌신부: 양종욱 대건 안드레아

연령회장: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팩스: 703 968 3013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로마 5,5) · 희망의 순례자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요한 16,15)



〈삼위일체〉, 루카 로세티, 이브레아 성 가우덴시오 성당, 이탈리아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다해)

제 1 독 서 잠언 8,22-31 |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지혜는 태어났다.

화 답 송 시편 8 | ◎ 주님, 저희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이 얼마나 크시옵니까!

제 2 독 서 로마 5,1-5

우리는 성령께서 부어 주시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 나아갑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받으소서. ◎

복 음 요한 16,12-15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¹²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¹³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

¹⁴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¹⁵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바오로 딸 콘텐츠

✠복음 묵상

요한 복음서를 보면 성부와 성자께서는 서로 안에 계시면서 모든 것을 공유하시며 완전한 일치를 이루십니다(10,38; 14,10-11; 14,20; 17,21 참조). 상대 안에 있으려면 먼저 자기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저마다 자신에게서 나와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들은 아버지에게 온전히 자신을 내줌으로써 일치를 이루십니다.

삼위일체의 신비는 두 가지 원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인 신성을 세 위격이 공유하신다(본성의 일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고유한 위격이신 성부와 성자께서 서로 사랑하시어 당신을 내주시고 상대를 받아들이시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시는 끊임없는 과정으로서의 일치(사랑의 일치)를 말합니다.

첫 번째 일치는 우리가 ‘믿는’ 신비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일치입니다. 고유한 ‘나’와 ‘너’가 자기에게서 나와서 자신을 내주고 상대를 받아들일 때 삼위일체가 드러납니다. 그러할 때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특히 무엇보다 삼위일체의 모상인 가정은 가장 고유한 모습을 지니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성삼위의 존재 방식은 교회의 바탕이요 본보기이며 귀착점으로서 ‘삼위일체의 교회’,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치로 모인 백성”(교회 헌장, 4항)을 낳습니다.

교회 안의 모든 공동체는 삼위일체의 친교를 따라 살도록 초대받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큰 신비이기에 우리 삶과 무관한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날마다 실천할 수 있고, 살아가야 하는 신비가 삼위일체의 친교입니다. ‘서로 자기에게서 나와 자신을 내주고 상대를 받아들이면서’ 삼위일체의 친교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국춘심 방그라시아 수녀>

Holy Trinity

삼위일체는 사랑의 신비

우리는 삼위일체의 사랑을 향해서 길을 가는 순례자들

| 삼위일체는 신비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삼위일체의 신비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의 핵심적인 신비이다. 이는 하느님 자신의 내적 신비이므로, 다른 모든 신앙의 신비의 원천이며, 다른 신비를 비추는 빛이다. 이는 “신앙 진리들의 서열”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교리이다.

“구원의 역사[救世史]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신 참되고 유일한 하느님께서 당신을 알리시고, 죄에서 돌아서는 인간들과 화해하시고 그들을 당신과 결합시키시기 위한 길과 방법의 역사이지 그 밖에 다른 것이 아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234항).

삼위일체 교리는 그리스도교의 특징이고,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러나 쉽게 이해될 수 없는 교리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이렇게 복잡한(모순적으로 보이는) 모습일까요?

우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비입니다. 하느님은 삼위일체이시라고 우리는 다만 믿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알려 주셨고, 사도들이 그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계시하시면서도 형언할 수 없는 신비로 머무르신다. <만일 여러분이 하느님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하느님이 아닐 것입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230항).

| 삼위일체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느님은 사랑입니다”(1요한 4,8)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혼자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은 그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삼위일체이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느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통해 드러나는 하느님은 여타의 다른 종교들에서 말하는 외로운 독재자 같은 하느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분은 홀로 계시지만, 동시에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위격이 구별되어 있어서 그분들 안에서 서로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가정에서 사랑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베풀기

어렵다고 합니다. 반대로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세상에 사랑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사랑은 흘러 넘칩니다. 사랑은 기쁨이기에 저절로 노래가 나오고 세상에 소리치고 싶어집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나누시는 하느님의 사랑도 흘러 넘칩니다. 그 사랑은 흘러 넘쳐 세상을 창조합니다. 세상은 하느님 사랑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창조를 믿는다면 그것은 사랑의 하느님, 삼위일체의 하느님을 믿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는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1요한 4,7-8)



성 삼위일체 프레스코화,
비엔나의 헤르츠 예수 교회 본당

| 우리는 삼위일체의 사랑을 향해서 길을 가는 순례자들

삼위일체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삼위일체의 신비는 우리들의 탄생의 비밀이고, 우리들의 고향입니다. 또한 우리는 삼위일체의 사랑을 향해 나아가도록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삼위일체의 신비는 우리 인생의 목적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며 광야의 여행길을 걸어갔듯이, 우리는 삼위일체의 사랑을 향해서 길을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제 안에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요한 17,21-23)

1 연중 제11주간 모임 안내

- 6월 15일(일) : 하상회, 안나회, 꾸리아 월례 회의, 사랑의 울타리
- 6월 20일 (금) : 바오로회 자매 모임
- 6월 20일(금) - 21(토) : 베드로회 여름 캠프
- 6월 21일(토) : 요한회 소공동체 미사
- 6월 21일(토) - 27일(금) : CYO WorkCamp

2 연중 제12주간 모임 안내

- 6월 22일(일) : 루카회 월례 모임, 오후 12시
- 6월 22일(일) : K of C 친교 모임, 오후 12시(나눔터)
- 6월 22일(일) : 남성 꾸르실로 봉사자 회합, 오후 2시
- 6월 25일(수) : 회장단 회의, 오후 6시
- 6월 27일(금) : 예수 성심의 밤, 저녁 7시
- 6월 27일(금) : 울트레아 회합, 저녁 8시
- 6월 27일(금) : 베드로회 자매 모임, 저녁 8시

3 사랑의 울타리(대부모, 대자녀 프로그램)

- 일시 : 6월 15일(일) 오전 11:30
- 장소 : 친교실 (B-1,2)
- 예비자들과 함께 친교 모임을 원하시는 분들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이성근 예레미야 (703) 627-1932

4 선거일 - 친교실 사용 금지

- 6월 17일(화)은 버지니아 주 예비선거일로 성당 친교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선거단의 업무에 방해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날 모든 모임은 하상관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베드로회 여름 캠프

- 일시 : 6월 20일(금) 저녁 6시 - 6월 21일(토) 오전 9시
- 장소 : 하상관 체육관
- 문의 : 하청수 크리스피노 (310) 292-4791
- 베드로회에서 가족들 여름 캠프를 성당 하상관을 비롯한 성당 부속 건물에서 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미사도 봉헌하며, 가족이 함께 하는 즐거운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회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6 요한회 소공동체 미사

- 일시 : 6월 21일(토) 오전 11:30
- 장소 : 친교실 (A-1)
- 요한회 회원분들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 CYO WorkCamp 안내

- 일시 : 6월 21일(토) - 27일(금)
- WorkCamp에 참가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 예수 성심의 밤

- 일시 : 6월 27일(금) 저녁 7시부터
- 처음으로 예수 성심의 밤을 봉헌하려 합니다. 우리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드리기 위해 마련한 시간입니다. 많은 교우분들께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성심의 밤 시작은 저녁 7시입니다. 시간 확인 꼭 부탁드립니다.

9 볼티모어 한국 순교자 성당 성전 건축 기금 마련

- 일정 : 6월 28일(토) - 29일(일) 모든 미사
- 볼티모어 한국 순교자 성당 건축을 위해 신부님께서 우리 본당을 방문하십니다. 교구는 달라도 우리 곁에 있는 한인 성당 건축에 도움을 주시기를 청해봅니다. 우리도 예전에 어려움을 겪어 보았기에 그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당일 2차 현금과 약정을 받으니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 2025년 하상 한글학교 여름 학기 안내

- 일정 : 6월 16일(월) - 7월 25일(금)까지
- 하상 한글학교 여름 학기에 총 250여 명이 등록하여 18개 반으로 운영됩니다. 매년 운영되는 하상 한글학교는 신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에서 자녀들에게 한국인의 뿌리와 정체성을 심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신자분들의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우분들께 불편함을 드려 죄송합니다. 원활하고 안전한 여름학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 주보 편집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2014년 10월부터 새로운 편집으로 <하상주보>를 제작해 주신 주보팀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0년 동안 교회의 가르침과 교구 및 본당 소식을 알리고자 애쓰신 편집위원과 디자인팀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12 주보 공지 안내

- 7월부터 주보는 본당 소식만 심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주보 편집팀을 구성하기까지 준비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시며 기다려 주시면 몇 달 후 이쁜 주보를 보시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교황님의 6월 기도 지향
세상을 향한 연민

우리가 저마다 예수님과 맺는 인격적 관계에서 위로를 얻고, 예수 성심께 세상을 향한 연민을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교중미사 예물봉헌

06/15 이번 주	페어팩스 3구역 3반
06/22 다음 주	라운던 구역 1반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5년 6월 8일 (성령 강림 대축일)

봉헌금	\$ 8,707.00
교무금	\$ 8,620.00
교무금(신용카드)	\$ 3,860.00
감사 현금	\$ 300.00
온라인 봉헌	\$ 1,780.00
합계	\$ 23,267.00

※ 주일현금 및 2차 현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버지니아 성정 바오로 성당 제교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Fios Ch. 30

2025년 6월 19일(목) 오후 5:00 - 6:00
2025년 6월 20일(금) 저녁 8:00 - 9:00
2025년 6월 22일(일) 오전 6:00 - 7:00

- 가톨릭 소식
- 주일강론
- 가톨릭 영상교리 : 목주기도
- 미니 시리즈 순례 :

[7회] 그리스 사도 바오로의 발걸음 (22)

▶ 미사 전·후 성당 입구에서 침묵을 지켜 주세요



미사 시간 안내 (Mass Schedule)

주일미사	8:00 AM 10:00 AM(교중미사) 2:00 PM(학생미사)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미사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6:00 AM	7:30 PM	11:00 AM	